

그리스인들의 우주 - 신화와 철학

손윤락

차례

I. 태어나는 신들과 세계의 그림

- 1.1. 호메로스가 그린 세계
 - 1) 오케아노스는 태초의 존재
 - 2) 오케아노스는 세상의 끝이자 받침
- 1.2. 헤시오도스와 신들의 탄생
 - 1) 카오스, 우주의 모태
 - 2) 가이아의 자손들과 공간의 전개
- 1.3. 구형의 우주와 지구중심주의
 - 1) 동글납작한 지구와 반구형 하늘
 - 2) 우주의 입체적 그림

II.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과 공간

- 2.1. 시간과 공간의 문제, 개념 구분
 - 1) 사유의 틀로서의 시간-공간 개념
 - 2) 문학작품의 배경으로서의 시간-공간
 - 3) 삶의 기간과 장소로서의 시간-공간
- 2.2. 서사시 텍스트에서 시간과 공간 배경
 - 1) <신들의 계보>, <일과 날들>
 - 2) <일리아스> 제1권
 - 3) <오뒷세이아> 제5권
- 2.3. 시간과 공간
 - 1) 칸트의 시간, 공간
 - 2) 그리스 서사시의 시공간
 - 3) 신의 시간, 인간의 시간

III. 인간이 만들어가는 우주론

- 3.1. 탈레스, 최초의 철학자
 - 1) 세계의 기원은 물이다
 - 2) 세계를 떠받치는 물
 - 3) 만물은 신들로 차있다
- 3.2. 아낙시만드로스, 개념의 세계로
 - 1) 아페이론과 우주의 탄생
 - 2) 우주론의 시작
 - 3) 아낙시만드로스의 세계 지도

I. 태어나는 신들과 세계의 그림(cosmogony & cosmography)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있다”(panta plêrê theôn)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¹⁾ 여기서 panta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즉 우주(pan)를 가리키므로, 이 말은 “우주는 신들로 가득 차있다”는 뜻이다. 존재의 총합이라는 단일한 우주 개념이 생겨난 것을 탈레스를 비롯한 최초의 철학자들이 활동한 기원전 6세기 즈음으로 볼 수 있다면, 이때가 신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두 세기 쯤 앞서, 오랜 구전 시가의 전통들을 받아서 호메로스가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들, 헤시오도스가 하늘과 땅과 신과 인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글로 남겼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며, 이 신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즉언젠가 어디선가 누구에게선가 몸을 받고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스인들에게 우주는 한마디로 신들의 몸이다. 신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천체의 운행과 계절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신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만 해도 많았다. 그들은 이 이야기(mythos)에 귀를 기울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들의 기원이란 다른 어떤 이 세계의 기원이었기 때문이다.

1.1. 호메로스가 그린 세계

1) 오케아노스는 태초의 존재 = 시간적 기원

호메로스에 따르면 태초에 오케아노스와 테튀스의 결합으로 모든 신들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오케아노스는 모든 신들의 조상으로서, 만물의 시간적인 기원으로 나타난다.

그녀[아프로디테]에게 존경스런 헤라가 교활한 마음을 품고 말했다.²⁾
“그러면 나에게 애정과 욕망을 주세요. 그것으로
그대는 불사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을 모두 정복하니깐요.
나는 신들의 아버지 오케아노스와 어머니 테튀스를
만나보려고 풍요로운 대지의 끝으로 가는 길이에요. (Ilias, 14.197-201)

그녀[헤라]에게 달콤한 잠의 신이 이런 말로 대답했다.
“헤라여, 존경스런 여신이여, 위대한 크로노스의 따님이여!
영생하는 신들 중에 다른 분이라면 내가 쉽게 잠들게
할 수 있어요. 설사 그가 그들 모두를³⁾ 생겨나게 한
오케아노스 강의 물줄기라 하더라도 말이오. (Ilias, 14.242-246)

그[제우스]에게 존경스런 헤라가 교활한 마음을 품고 대답했다.
“나는 신들의 아버지 오케아노스와 어머니 테튀스를
만나보려고 풍요로운 대지의 끝으로 가는 길이에요. (Ilias, 14.300-302)

1)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I 5, 411a8.

2) 아가멤논도 부상을 입고 철군을 제의할 만큼 전황이 그리스 군대에 불리해지자 헤라가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제우스로 하여금 자기에게 애욕을 일으키게 하고, 잠의 신에게 제우스를 잠재우게 한 다음, 그 사이에 그리스인들이 이기게 하려고 한다.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이라 곧이곧대로 말할 수 없으므로, 헤라는 애욕이 필요한 이유를 “자신을 길러준, 신들의 부모 오케아노스와 테튀스가 -- 갈등으로 --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지 오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인용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2) 오케아노스는 세상의 끝을 이루고 세상을 떠받치는 신 = 공간적 기원

호메로스에 따르면 오케아노스는 또한 가이아의 가장 먼 데를 휘감아 흐르는 거대한 강으로, 평면적으로 세상의 끝을 이룬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장면이 “아킬레우스의 방패”로 알려진 <일리아스> 18권의 이야기다. 여기서 헤파이스토스는 -- 바다의 여신이며, 위의 테튀스(Tethys)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Thetis)의 부탁으로 영웅의 방패를 만드는데, 다른 아닌 대지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소상히 새겨 넣고 있어 한 마디로 세계상(imago mundi)이라고 할 만하다. (Ilias. 18.478-608).

거기에 그는 대지와 하늘과 바다와
지칠 줄 모르는 태양과 만월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을 장식하고 있는 온갖 별들을,
플레이아데스와 휘아테스와 오리온의 힘과
사람들이 짐수레라고도 부르는 큰곰을 만들었다.
큰곰은 같은 자리를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는데
이 별만이 오케아노스의 목욕에 참가하지 않는다. (Ilias, 18.483-489)

이어서 방패에는 결혼식 피로연, 재판장의 판결, 전쟁과 매복, 그리고 신들의 개입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겪는 평화와 전란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 마치 한 폭의 영웅찬가를 이미지로 축소해놓은 듯하다. 그 맨 끝에 다시 오케아노스가 나온다.

거기에 그는 또 튼튼하게 만든 방패의 맨 바깥 쪽
가장자리를 따라 오케아노스 강의 위대한 힘을 넣었다. (Ilias, 18.607-609)

오케아노스는 세상의 끝을 이를 뿐 아니라, 세상을 밑에서 떠받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Ilias, 9.182) <일리아스> 9권의 한 장면을 보자.

두 사람[네스토르와 오뒤세우스]은 노호하는 바다의 기슭을 따라 걸어가며
아이아코스의 손자[아킬레우스]의 위대한 마음을 쉽게 설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지를 떠받치고 대지를 흔드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다. (Ilias, 9.182-184)

여기에서 “대지를 흔드는” 신은 포세이돈이지만, 포세이돈은 “대지를 떠받치는” 신은 아니다. 포세이돈은 가이아의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 즉 땅거죽과 바다 위를 관장하며 그것이 갈라지거나 출렁이게 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오케아노스는 뱃길이 열린 서쪽뿐 아니라 온 방향으로, 인간이 갈 수 없는 땅들 너머까지, 가이아를 온통 두르며 가이아의 아래로 “깊이 흘러서”(Ilias. 14.310) 대지가 그 위에 떠있게 한다. 따라서, 여기서 대지를 떠받치는 신은 오케아노스라고 볼 수 있다.

오케아노스는 이렇게 세상의 공간적 기원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고대 문명에서 이 거대한 세상을 굳건한 토대 위에 정초하는 일이 중요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 원문은 pantessi. 이 부분은 천병희 번역 “만물을”을 따르지 않고, 대신 앞의 신들을 받아서 “그들 모두를”로 옮겼다. 나머지 서사시의 우리말 번역은 대부분 천병희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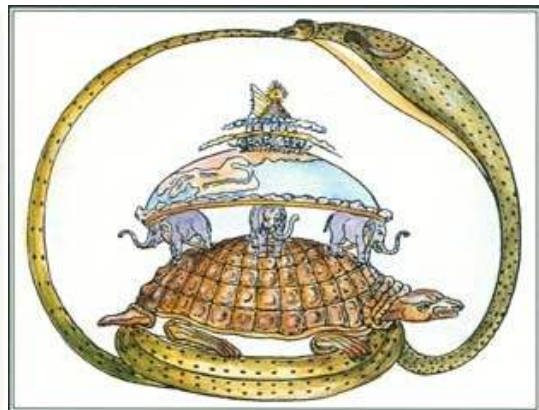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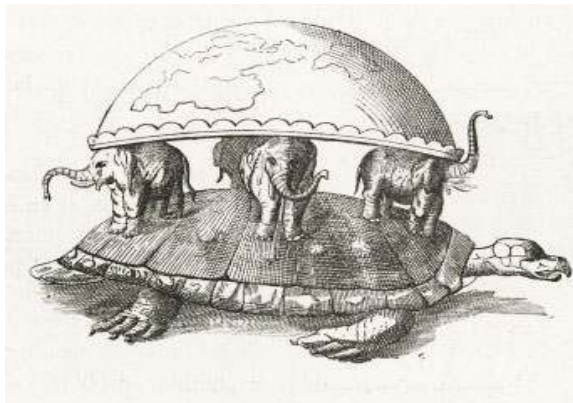
대지를 떠받치는 오케아노스라는 개념은 고대 천체론에서 “부동의 원동자”(unmoved first mover)⁴⁾ 역설에 의해 불거지는 무한 소급의 문제와 닿아 있다. 이것은 ‘우주를 처음 움직인 그 존재는 누가 움직였는가’ 혹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받치는 존재는 누가 떠받치는가’라는 물음이 주는 문제인데, 더 쉽게 말하면, ‘병사들은 보초가 지켜주지만 보초들 자신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Quis custodiet ipsos custodes?)라는 순환적 인과의 역설이다.

“원시적 우주 신화”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평평한 땅 위에 있고, 땅은 결국 거북의 등껍질 위에 지탱하고 있다는, 이른바 “거북”의 은유는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1988), 첫 구절.⁵⁾

어떤 유명한 과학자(B. 러셀이었다고도 하지만)가 천문학에 관한 대중 강연을 했다. 그는 어떻게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태양이 우리의 은하라고 불리는 광대한 성단의 중심 둘레를 회전하는지 설명했다. 강연 끝에 뒷좌석에서 한 노부인이 일어나 말하기를, “당신 얘기는 엉터리예요. 이 세계는 거대한 거북의 등 위에 놓여 있는 납작한 판자라고요.” 과학자가 묻기를, “거북은 무엇 위에 서있나요?” 노부인이 대답하기를, “참 똑똑하시군요, 젊은 양반. 하지만 그건 밑으로 계속 거북이란 말이에요!”

힌두 신화에 따르면 이 세상은 사방에서 거대한 코끼리들이 떠받치고 있다. 그러면 코끼리들은 무엇을 던고 서있는가? 코끼리들은 더욱 거대한 거북의 등을 밟고 서있다. 그러면 거북이는 무엇을 밟고 있나? 거북은 거대한 뱀 위에 놓여 있고, 이 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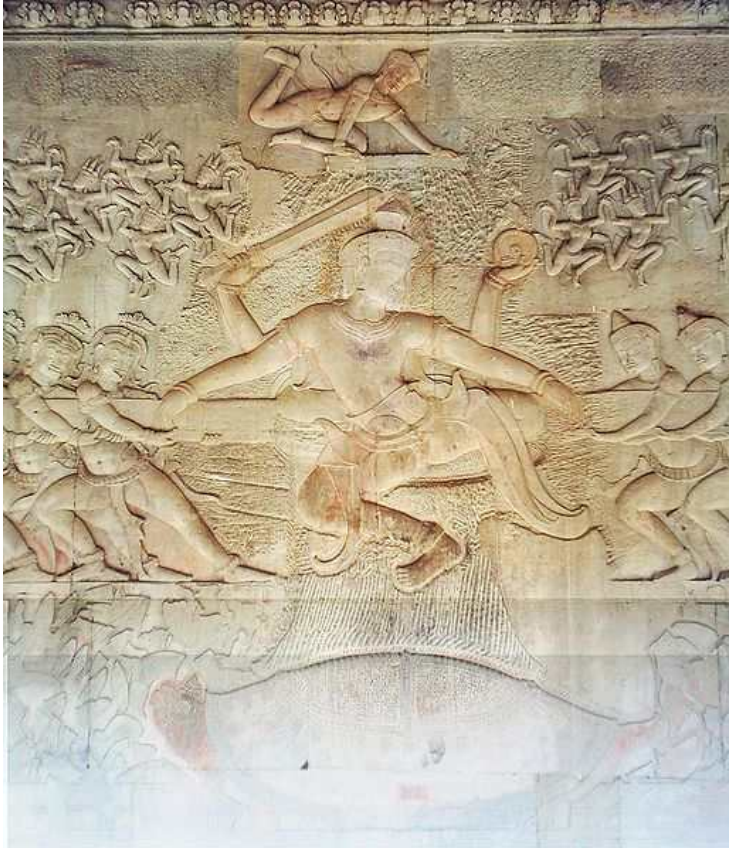


사실 이 세상을 떠받치는 코끼리 이야기는 산스크리트어로 코끼리와 뱀을 동시에 의미하는 명사 Naga에서 온 혼동이라는 설이 있는데(cf. Wilhelm von Humboldt), 어쨌든 동서를 막론하고 최초의 사유자들은 세상의 토대를 놓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4) “부동의 원동자”(prôton kinoun akinêton)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최초의 원인이지만 자기 자신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최초의 동인, 즉 신을 가리킨다.

5) S. Hawking(1988), *A Brief History of Time*, New York: Bantam Books, p.1.

아래는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사원에 있는 “우유바다 굳히기”(amritamanthana)라고 불리는 부조 사진이다. 힌두교의 주된 신이며 우주의 순환적 운동을 주재하는 비쉬누 신이 태초에 세상의 양편을 중재하여 우유바다를 굳히는 장면으로, 아래에는 거북이 떠받치고 있다.



“우유바다 굳히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태초에 신들(Deva)과 악귀들(Asura)이 세상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다. Deva들이 지쳐 비쉬누 신에게 도움을 청하자 비쉬누는 두 편이 힘을 합쳐 우유바다(Kshirodadhî)의 넥타르(amrita)를 저어서 굳히도록 권한다. 그들은 신비의 풀을 바다에 넣고, Mandara 산을 뒤집어 그 정상을 비쉬누 신의 한 화신(아바타)인 거북(kurma) Akûpâra의 등껍질 위에 놓고, 뱀(naga)들의 왕 Vâsuki를 사용해서 그 산을 양편에서 이쪽저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일해야 한다. 천년 동안 일해서, 우유가 굳고 거기서 놀라운 사물들과 존재들이 만들어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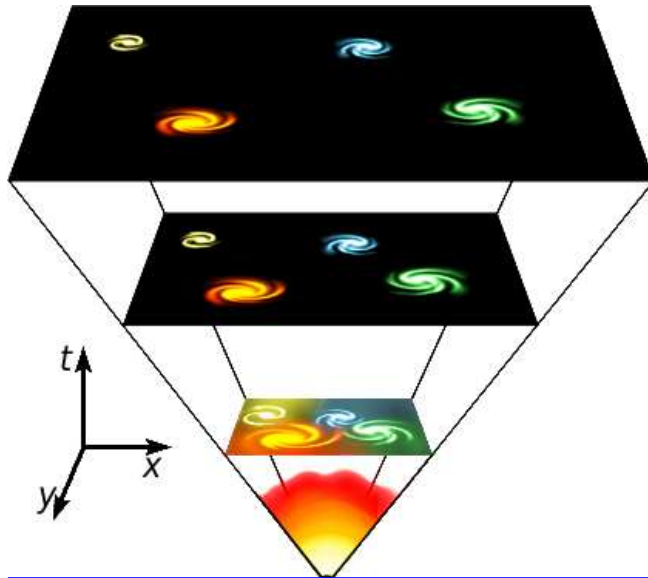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보이듯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초적 강물의 신인 오케아노스를 세상을 떠받치는 존재로 그렸는데, 이것은 신화시대의 끝자락에 걸친 탈레스가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보고 세상이 물위에 떠있다고 주장한 것과 통한다.

1.2. 헤시오도스 = 공간의 시간적 전개

1) 카오스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는 한 점에서 Big Bang이 일어나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있다. 빅뱅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무한대의 밀도와 온도를 가진 한 점의 상태(singularity)로 수렴했고, 이 순간 원초적 대폭발이 일어났으며, 이때부터 팽창하면서

식은 결과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빅뱅이 있으려면 “뽕”이 일어날 “자리”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묻지 않는다. 물론 우주의 “바깥”도 존재하지 않는다. 발표자가 물리학에 과문하여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 자리란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뿐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헤시오도스의 우주 시작에 대한 설명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 맨 처음에 거대한 텅 빈 카오스(Chaos)가 생겼고, 여기에 처음으로 가이아와 타르타로스와 에로스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카오스는, 후대에 “혼돈”이라고 해석되는 것과는 뜻이 많이 다르다. 우리말에서 혼돈이란, 중국 신화의 “혼돈”도 그렇지만,⁶⁾ 모든 것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그리스 신화의 카오스(Chaos)는 그런 혼돈이 아니라 아마도 “세상이 생겨날 자리”로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일 것이다. 물론 카오스도 “태어난 신”이지만, 텅 빈 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것에 어떤 규정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규정성을 가진 존재로서는 가이아가 태초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 가이아의 자손들과 공간의 전개

헤시오도스가 전하는 신화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카오스에서 생겨난 가이아가 낳는 그룹과, 가이아처럼 카오스에서 나온 또 다른 어미인 뉅스(밤)가 낳는 그룹으로 나뉜다. 가이아 계열은 우라노스(하늘), 우레아(산맥), 폰토스(바다) 등 공간적인 존재들인 반면, 뉅스 계열은 헤메라(낮), 아이테르(밝음)처럼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 휘프노스(잠), 타나토스(죽음), 모모스(비난) 등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가이아 계열 (Theogonia, 115~210)

6) 우리말 “혼돈”은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 신화에서 혼돈(渾沌 또는 混沌)은 머리에 눈, 코, 입, 귀가 없는 창조 이전의 존재로 등장한다. 북해의 천제인 홀(忽)과 남해의 왕 숙(熟)이 함께 힘을 합쳐 혼돈에게 눈 둘, 귀 둘, 콧구멍 둘, 입 등 칠공(七孔)을 뚫어 천지를 창조하였다.

Chaos => 가이아Gaia

* 가이아 혼자서 => 우라노스(하늘), 우레아(산맥), 폰토스(바다)

* 가이아 + 우라노스 = 티탄족 신들(6남 6녀)

=>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레이오스, 휘페리온, 이아페토스, 크로노스
테튀스(Tethys), 포이베, 테미스, 테이아, 므네모쉬네, 레아

티탄족 아닌 비정규 자식 두 그룹(각 3명) =

=> 퀴클롭스[외눈]: 브론테스(천둥), 스테로페스(벼락), 아르게스(번개)
헤카톤케이르[백수]들: 코토스, 브리아레오스, 귀게스

* 우라노스의 핏방울 + 가이아

=> 에리뉴스(복수)들: Erinyes=후대: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 Eumenides
기가스(거인)들: 무구 입고 장창을 들
멜리아(물푸레나무)들: 창자루로 쓰인 물푸레나무 요정들.

* 가이아 + 폰토스 => 네레우스, 타우마스, 포르퀴스, 케토, 에우뤼비에

* 가이아 + 타르타로스 => 튀폰

닉스 계열 (Theogonia, 211~232)

Chaos => 닉스Nyx

* 닉스(밤) + 에레보스(어둠)

=> 헤메라(낮, 날), 아이테르(밝음)

=> 모로스(운명), 케르(사망), 타나노스(죽음), 휘프노스(잠), 오네이로이(꿈 부족)

* 닉스 혼자서?

=> 모모스(비난), 오이퀴스(고초), 헤스페리데스(서쪽요정들)

=> 모이라이(운명들):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케레스(사망 여신들), 네메시스(응보), 아과테(기만), 필로테스(정), 게라스(노령), 에리스(불화)

* 에리스(불화)의 자식들

=> 포노스(노고), 레테(망각), 리모스(기아), 알고스(고통), 전투, 전쟁, 살인, 도륙, 네이코스(언쟁), 프세우테스(거짓말), 로고스(핑계), 반론, 무질서, 아테(미망), 맹세

우리는 이 가운데서 가이아 계열의 존재들만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가이아로부터 생겨난 자식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로, 현 세계의 공간적 배치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미가 자식을 낳는 것은 새로운 세대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시간 순으로 공간이 배치되고 확장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먼저, 가이아는 혼자서 우라노스와 우레아, 폰토스를 낳는다.

우라노스(하늘)

우레아(산맥)

폰토스(바다)

가이아는 다음으로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6남6녀 열두 자식을 잉태하는데, 이들을 티탄 신족이라고 부른다. 다만 우라노스는 여전히 가이아의 배 위에 바짝 붙어 있고, 자식이 태어나 무릎 근처에 이르면 그때마다 우라노스가 가이아의 뱃속에 도로 밀어 넣어버린다. 드디어 “크로노스의 우라노스 거세”가 있고,⁷⁾ 열두 자식들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둘은 원초적 공간 개념을 가지는 신격이다.

오케아노스(Oceanos)

테튀스(Tethys)

여기서 오케아노스의 자매이자 그와 결합하는 테튀스는, 그 역시 원초적인 바다의 여신인데, 사실 오케아노스의 분신으로서 생산을 위해서 성을 분리한 경우일 수 있다. 이야기가 이즈음에 이르면 벌써 위로는 우라노스가 있고 그 아래로 우레아와 폰토스, 오케아노스, 테튀스가 있으며 그 모든 자식들을 가이아가 자궁 속에 품고 있고, 가이아의 아래 저 깊은 곳에 타르타로스가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 된다.

티탄 신족의 6남6녀 가운데 테미스와 브네모쉬네는 나중에 제우스의 아내가 되지만, 나머지는 남매간에 둘씩 짝을 이루는데, 그 중 오케아노스와 테튀스가 결합했고, 둘 사이에서 강의 신 포타몬(Potamon, pl. Potamoi)과 물의 요정 오케아니스(Oceanis, pl. Oceanides)가 각각 삼천 명씩 태어났으니, 바다와 강, 호수와 샘 등 물과 관련된 모든 공간이 다 이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호메로스가 세상의 태초를 오케아노스와 테튀스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노래한 것과 통한다.⁸⁾

재미있는 것은, 오케아노스는 나중에 티탄 신족과 제우스를 필두로 하는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형제들인 티탄 신족의 편을 들지 않고 프로메테우스, 테미스와 함께 전쟁에서 물러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새롭게 열릴 세계, 즉 제우스가 주재하는 현세에도 오케아노스가 여전히 가이아를 두르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자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상상했던 세계의 그림을 그려보자. 우선 땅 그림을 평면도로 그리고, 다음으로 우주의 모습을 가능하면 입체적으로 그려보자.

1.3. 구형의 우주와 지구중심주의(spherical cosmos and geocentric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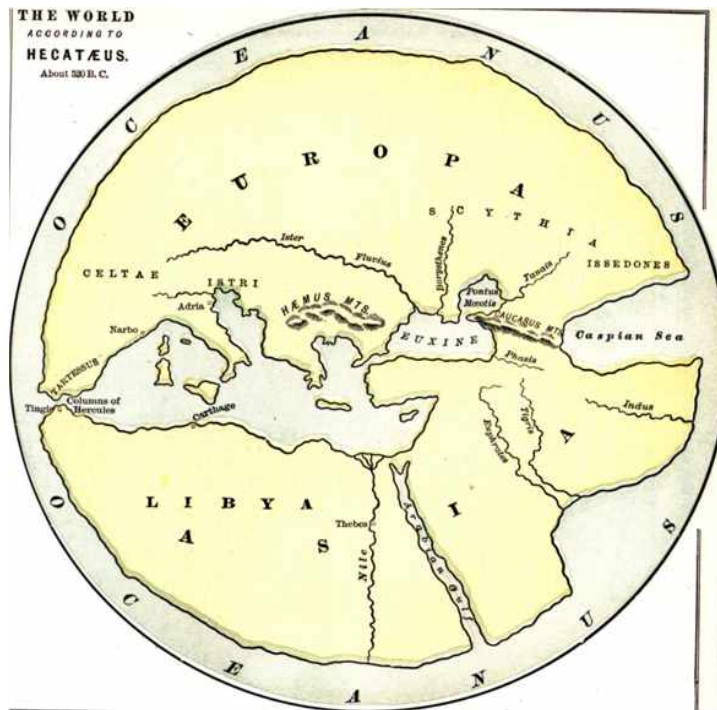
1) 가장자리가 둥근 지구와 지구를 둘러싼 반구형 하늘

먼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공통적인 세계 그림(cosmography)을 따라서 평면적으로 세계를 그려보면 아래와 비슷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사실 호메로스 시대보다 한 200년 뒤인 6세기 말에 밀레토스의 역사학자 헤카타이오스(Hecataios, ca. BC 550-476)가 쓴 이야기를 그림으로 복원한 것이다. 그는 아주 멀리까지 여행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리에 관한 지식을 쌓은 다음, 세상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설명한 것인데,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시대의 신화적 그림보다 조금 자세한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여기

7) 이 Kronos는 회랍어로 시간을 뜻하는 khronos와 혼동되어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때맞춰 추수하듯”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시간의 신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khronos라는 말은 신의 이름으로 쓰이지 않으며, 두 낱말은 관계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혹은 물리학적 개념으로서의 시간이나 공간의 신이 없다.

8)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둘 다 오케아노스를 거대한 흐름으로 보는데, 전자는 <오뒤세이아> 12권 1행 등에서, 후자는 <신들의 계보> 242행, 959행에서 이를 “Okeanos potamos”(오케아노스 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에서 기본적으로 신화에서 읽은 땅의 중심과 사방위 개념, 그리고 둥근 가장자리를 확인하면 된다.



헤카타이오스(Hecataios) 지도[BC 6c 말]의 복원도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 델포이를 “가이아의 배꼽(omphalos)”으로 부르며 그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니, 일단 “가슴이 드넓은” 가이아가 무한히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산맥(우레아)과 바다(폰토스)들, 강(포타몬)들이 있고, 인간은 함부로 갈 수 없지만 사방으로 끝까지 간 데에 오케아노스가 가이아를 두르고 있는 것이다. 뱃사람이 바다를 향해한다면 대체로 지중해거나 흑해이고, 서쪽으로는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금기였는데, 그 너머에는 오케아노스가 있고 한 번 그 강물에 휘말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오케아노스의 위치에 대해 좀 더 말하자면, 아침에 태양 신 헬리오스가 동쪽 끝으로부터 마차를 타고 --실려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 가는 것이므로 사실은 태양이 마차 앞에 가는 꼴이지만-- 우라노스의 궁궐을 크게 날아서 저녁이면 서쪽 먼 오케아노스에 내린다. 그는 밤 동안 오케아노스의 흐름을 타고 북쪽으로 가이아를 반 바퀴 돌아서 다시 동쪽 끝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1권에는 테티스가 아들 아킬레우스의 청에 답하여,⁹⁾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이 아이티오페스 사람들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오케아노스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우스께서는 어제 나무랄 데 없는 아이티오페스족의 잔치에
참석코자 오케아노스로 가셨고, 다른 신들도 모두 따라갔다.

9) 불후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여기서 좀 전에 아가멤논에게 명예의 상인 여인 브리세이스를 빼앗기는 모욕을 당했고, 이를 앙갚음 해주기를 제우스에게 청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한다. 우리의 인용 구절은 그것에 대한 테티스의 대답인데, 읽기에 따라서는 마마보이와 치맛바람 엄마의 태도를 볼 수도 있다.

열이틀째 되는 날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오실 것인즉,
내 그때 문턱이 청동으로 된 제우스의 궁전으로 가서
그분의 무릎을 잡겠다. 아마 내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Ilias, 1.423-427)

이때 오케아노스는 통상 인간이 배를 타고 바다의 끝까지 가서 금기의 선인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넘으면 도달한다고 하는 서쪽 오케아노스가 아니다. 아이티오페스쪽은 바다 너머 남쪽 땅, 즉 아프리카에 사는 족속이므로, 제우스와 신들이 간 곳은 아마도 남쪽 오케아노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케아노스가 사망으로 끝 간 데에서 가이아를 두르며 흐르고 있으므로, 가이아의 가장자리는 중심에서 볼 때 등거리에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구의 외형은 둥근 모양을 띠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림이 평면적이고, 당시 사람들이 지구를 평면적으로 이해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자리가 둥근 지구”라는 이 생각이 입체적으로 “구형 지구”를 그리게 되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이다.

2) 우주의 입체적 그림

우라노스 [올림포스 궁전+ 신들의 거처]
--가이아 ----- [인간의 거처]-----
-하데스 [죽은 인간의 혼백들의 거처]
+ 타르타로스 [처단된 티탄신들의 감옥+ 헤카톤케이레스의 근무지]

우라노스는 처음에 가이아의 위에 얹어져 생식행위에 몰두하다가 가이아의 음모로 막내아들 크로노스에게 거세당한 뒤로 가이아에게서 떨어져 하늘의 거대한 공룡이 되었다. 이제 “신들의 거처”로 불리는 우라노스는 사망으로 세상의 끝인 오케아노스 너머에서부터 가이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그 모양은 반구(hemisphere)의 형태로 그 천정 아래, 땅에서 보면 올림포스 산꼭대기 위의 구름 속에 제우스의 궁전이 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다. 땅에서 우라노스의 정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화 속에서 제우스의 궁전에서 땅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지표는 있다. 하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얼마나 지난 뒤에 땅에 떨어질까?

<신들의 계보>에는 불사의 신들을 위해 집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헤파이스토스가 그의 작업장에서 청동 모루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9일 낮밤을 꼬박 자유낙하를 하여 열흘째 날에 땅에 닿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대지에서 안개 낀 타르타로스까지는 그만큼 멀었다.
왜냐하면 청동 모루가 아홉 밤 아홉 낮을 하늘에서
떨어져야 열흘째 되는 날 대지에 닿고,
다시 청동 모루가 아홉 밤 아홉 낮을 대지에서
떨어져야 열흘째 되는 날 타르타로스에 닿기 때문이다. (Theogonia, 721-725)

이 이야기에 따르면,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와 땅과 하데스 밀바닥까지, 즉 타르타로스의 입구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런데 청동 모루가 떨어지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천정이 아니라 올림포스 궁전의 한 편에 있는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이고, 높이로 볼 때 천정보다 조금 아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땅까지가 “청동 모루가 9일간 떨어지는 거리”이고 또 그만큼이 땅에서 타르타로스 입구까지의 거리다. 이것은 신화시대의 우주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이 구절이 나온 김에 타르타로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타르타로스 주위에는 청동이 둘러져 있고,
그 목 주위에는 어둠이 세 겹으로 펼쳐져 있으며
그 위에는 대지와 추수할 수 없는 바다의 뿌리가 나 있다.
그곳 안개 낀 암흑 속에 티탄족은
구름을 모으시는 제우스의 뜻에 따라 숨어 있다.
그곳 곰팡내 나는 곳에, 거대한 대지의 끝에.
그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포세이돈이 그곳에다
청동의 문을 달고 그 양쪽으로 성벽이 둘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충실한 파수꾼들인
귀게스와 콧토스와 의기양양한 브리아레오스가 살고 있다.
.....
그 앞에는 이아페토스의 아들[아틀라스]이 넓은 하늘을
머리와 지칠 줄 모르는 두 손으로 떠받치고
곳곳이 서 있으니, 그곳은 밤과 낮이 거대한
청동 문턱을 넘을 때 서로 다가가 인사하는 곳이다. (Theogonia, 726-749)

타르타로스는 하데스의 맨 밑바닥에 위치하는 곳으로 제우스가 크로노스의 권좌를 찬탈한 후 티탄신족들을 가두어둔 감옥인데, 하늘을 주름잡던 신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신들의 운명으로 보아도 의미심장하고, 우주의 그림으로 보아도 흥미를 일으킨다. 텍스트에서 보듯이, 타르타로스는 티탄족 신들의 감옥이자, 제우스를 도와 티탄족과의 전쟁에서 선두에서 싸우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헤카톤케이르 삼형제의 근무지이기도 하다. 그들은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자식들로 무지막지한 힘의 소유자들인데, 제우스는 이 일을 맡김으로써 티탄 신들과 함께 그들의 힘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타르타로스 자체에 대한 묘사가 주목을 끈다. 그곳은 “목 주위에 어둠이 세 겹으로 펼쳐져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타르타로스는 하데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니, 어둠이 세 겹이나 펼쳐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목 주변이라고 했을까? 타르타로스는 항아리 모양일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물건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나오는데,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하늘에서 집어던진 사건이다. 다름이 아니라, 제우스가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헤라를 사슬로 묶었는데 그것을 헤파이스토스가 풀어준 까닭에 아들을 던진 것이다.

그분께서는 전에도 한 번 제가 어머니[면전의 헤라]를 구해드리려 했을 때
제 발을 잡고 신성한 하늘의 문턱에서 내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종일 떨어지다가 해질 무렵 렘노스 섬에
닿았을 때는 숨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하나 그곳에 떨어진 저를 신티에스족이 곧 보살펴주었지요. (Ilias, 1.590-594)

청동 모루가 떨어진 경우와는 달리 신의 몸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땅까지 떨어지는 시간은 9일이 아니라 하루, 그것도 밤낮이 아니라 하루 낮이 걸린 것이다. 만일 제우스의 부부싸움이 오후에 있었다면 헤파이스토스가 낙하한 시간은 겨우 한나절, 즉 대여섯 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 헤파이스토스가 비록 어린 나이였겠지만, 신은 거대한 존재로 청동 모루보다 무거울 것이고, 갈릴레오의 실험을 알지 못하는 신화시대인지라, 청동 모루보다 확연히 짧은 낙하 시간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레오의 실험: 서로 다른 크기의 두 포탄이 중력에 의해 동일한 가속력을 받음

그런데, 동일한 작품 <일리아스>의 다른 곳에는 헤파이스토스의 추락이라는 같은 모티브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나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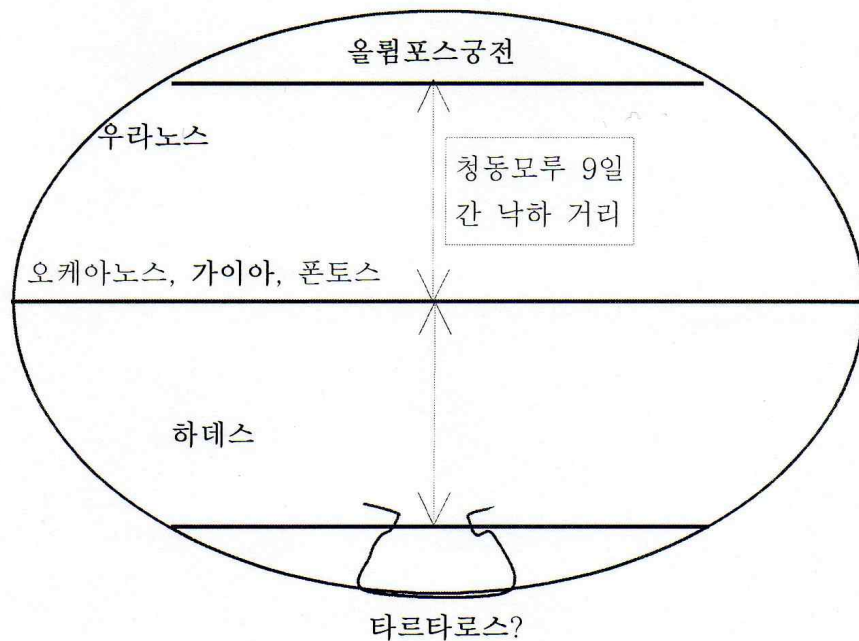
[면전의 테티스] 여신께서는 나를 구해주셨지요. 내가 절름발이라고 해서 나를 없애버리려던 파렴치한 어머니의 사악한 속셈 때문에 내가 멀리 추락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말이요. 그때 만일 에우뤼노메, 도로 그 자신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케아노스의 딸 에우뤼노메와 테티스께서 나를 품속에 받아주시지 않았던들 나는 마음속으로 고통당했을 것이요. 나는 아홉 해 동안 그분들 곁에서 지내며 속이 빈 동굴 안에서 브로치며 나선형의 팔찌며 귀걸이며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수없이 많이 만들었지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오케아노스의 흐름이 요란하게 거품을 일으키며 끝없이 흘러갔지요. (Ilias, 18. 395-594)

앞에서는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던진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어머니 헤라가 아이를 집어던진 것으로 나온다. 그것도 “아들이 절름발이여서”라는 게 이유다. 이번에 헤파이스토스가 떨어진 곳은 세상의 끝 오케아노스 강가다. 아마도 헤라가 좀 세게 던졌나보다.¹⁰⁾

10) 두 이야기가 다 헤파이스토스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황당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헤라 앞에서는 제우스가 던졌다고 하고(II. 1권), 테티스에게는 어머니 헤라가 던졌다고 하고(II. 18권)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 아니면, 떨어진 장소와 구해준 존재들도 다르므로, 두 번 떨어진 것인가? 한 번은 아기 때, 또

어쨌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자. 사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청동 모루가 도대체 얼마만한 속도로 떨어진단 말인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밖에... 그러니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도 아주아주 멀다고 할 수 밖에.

그러나 신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서사시의 행간으로부터 우리는 꽤 선명한 그림을 재구성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즉 가이아 위로 하늘의 궁륭이 펼쳐져 있는 거리만큼 아래로도 그만큼의 깊이까지 지하 세계가 있고, 그 각각의 높이는 청동 모루가 아흐레 낮밤 동안 떨어져야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그리고 하데스의 밑바닥에는 신들도 몸서리치는 타르타로스의 입구가 있어서 거기서 밤과 낮이 교대하는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



입체적으로 그린 신화의 우주

이상이 우리가 신화 텍스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렸을 법한 평면적인, 그리고 입체적인 우주의 그림이다. 코스모스(cosmos)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 있는 총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이아가 생겨나기 전의 카오스(chaos)와 전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이다. 가이아 이래로, 하나씩 신적인 존재들이 생겨나는 만큼 그만큼의 공간이 열리고 마침내 지금의 세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것을 우리는 공간의 시간적 전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달한 세계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구형 우주(geocentric spherical cosmos)의 모습이다.

사실, 이 구형의 우주가 구체적으로 완전한 원형인지 아니면 타원형인지, 타원형이라면 위의 그림처럼 횡으로 퍼진 형태인지 세로로 길쭉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

한 번은 다 자라서? 헤파이스토스는 진지한 신이므로 그런 것도 같다. 그러면 헤파이스토스는 하늘에서 떨어진 일로 불구가 된 것이 아니고, 불구로 태어났기 때문에 헤라에 의해 던져진 것인데, 신들의 결합에서 어떻게 불구의 몸이 나올 수 있는지?

계와 하계, 땅과 산, 바다와 강 등 공간적인 질서가 일관되게 펼쳐져 있어서, 이 신들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도 내일을 기약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II.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

이제 위에서 살펴본 밑그림을 바탕으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작품 속에 구현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간단하게 정리해보기로 하자.

2.1.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 - 개념 구분

1) 사유의 틀로서의 시간-공간 개념 자체의 문제

그리스의 서사시에서 사유의 틀로서의 시간과 공간 자체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에서는 물론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도 이러한 시간-공간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절대적인 시간-공간” 개념이라면 사실 근대에 와서 정착한 것인데, 18세기 이래로 뉴턴(1643~1727)의 물리학에서 정초되어 칸트(1724~1804)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2) 문학작품의 배경으로서의 시간-공간 구성의 문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에서는 현대적인 작가들이 문학작품의 배경으로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언제 어디인지가 어렴풋하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3) 삶의 기간으로서의 시간과 장소로서의 공간

만일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다면, 다른 아난 신들 혹은 인간들, 즉 살아 있는 존재들의 삶의 기간으로서의 시간과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서사시 텍스트에서 시간과 공간 배경

그렇다면, 우리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 작품에 나타난 위 2번과 3번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궁금해 하는 1번 개념은 어떤 것이었을까 엿보기를 시도해보자.

1) <신들의 계보>, <일과 날들> = 시간적?

흔히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와 <일과 날들>에서 시간적인 개념이 더 두드러져 나타난다고 본다. 그것은 태초의 신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공간적 개념들이지만 그것들이 시간적인 순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신들의 탄생과 배치가 바로 공간의 시간적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이아 계열의 신들은 가시적이고 정상적 공간을 그리고 있으며, 이것은 태초의 가이아로부터 시간 순으로 세계의 공간들이 확장되어 결국 현재의 구조를 설명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오케아노스와 테튀스가 강들과 물의 요정들을 각각 3000명씩 낳으니,

이들의 결합으로 비로소 세상의 강과 물이 정상적인, 즉 우리가 알고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반면 뉘스 계열의 신들 가운데는 공간적 개념을 가진 존재가 드물다. 그러나 카오스에서 나온 뉘스(밤) 자신과 그 딸인 헤메라(낮)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그 자체로는 공간 개념이 아니지만, 뉘스는 어둠(에레보스)이 들어차 인간과 신들이 일을 멈추고 달과 별들만이 계절과 시간의 지표가 되는 그런 “기간”이라면, 뉘스가 지나가고 거기서 헤메라가 나타나면 아이테르(밝음)가 함께 찾아와 인간들은 저마다 제우스가 부여한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즉 어떤 때를 나타내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행위가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수 있게 펼쳐져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시간이다. 뉘스와 헤메라, 에레보스와 아이테르의 순환은 우주의 운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이 시간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채운다.

2) <일리아스>(ex. 1권) = 공간적?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사건의 배경에 대한 묘사가 또렷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제1권에서 배경으로서의 공간은 사건과 대화[연설]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반면에 시간적 배경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일리아스> 1권의 노래가 시작되면, 시인이 무사 여신을 부르는 도입부(1-10행)는 이야기의 시간 바깥에 있고, 현재 상황이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사제 크뤼세스를 모욕한 데서 왔음을 알게 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한다.

흐른 날수	1일	9일	1일	12일	1일
그것을 알게 하는 사건	아가멤논이 크뤼세스를 모욕. 크뤼세스가 아폴론에게 기도함	앞날에 걸쳐= 아폴론이 내려와 그리스 군대에 화살을 날림	회의. 아가멤논->아킬레우스->테티스. 오뒤세우스 일행 크뤼세로	앞날에 걸쳐= 제우스와 신들이 아이티오페스족에게 감. 테티스 대기	앞날에 걸쳐= 신들의 귀환. 테티스가 제우스에게 올라가 간청
사건의 자리와 이동	그리스진영 땅->하늘	하늘->땅 외곽->함대	땅->바다속 바다->땅 트로이->크뤼세(숙영)	하늘->오케아노스 크뤼세->트로이 귀환	오케아노스->하늘 바다->하늘 올림포스궁전

이것이 <일리아스> 1권에 펼쳐진 시간이다. 여기서 청중은 노래 속에서 다만 신들과 인간들의 행위의 순서와 사건의 경과만으로 작품의 배경으로서의 시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신들의 공간과 인간들의 공간은 하늘과 땅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제우스의 뜻에 따라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는 지상에서도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신들에 비하면 제약이 많다. 신들이 하늘 꼭대기에서 땅 끝 오케아노스까지 가는 시간보다 오뒤세우스 일행이 트로이 성채 앞 진영을 떠나,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크뤼세로 가는 항해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인간은 오케아노스나 바다속처럼 결코 갈 수 없는 곳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웅들의 행동과 발언을 보면 인간에게는 시간적인 유한성이 사고와 행위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며,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운명(moira)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오뒤세이아>(ex. 5권) = 공간적?

<오뒤세이아>에서도 사건 이전에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선명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은 모험의 공간이 신비롭고 모호하게 처리됨으로써 일종의 환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오뒤세이아>에서는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된다. 예를 들어, 제5권에서 헤르메스가 오뒤세우스를 귀향시키자는 신들의 회의 결과를 칼립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그녀의 섬으로 가는 길이 인상적이다.

보통 신들의 현현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일리아스> 1권에서 사제 크뤼세스의 기도를 들은 아폴론은 즉시 하늘에서 내려와 화살을 날리고, 아킬레우스의 기도를 받은 테티스도 바다로부터 즉시 나와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킬레우스가 자신을 모욕하는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칼을 뽑는 순간, 그 찰나에 아테나 여신이 영웅의 금발을 뒤에서 잡는다. 여신은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림포스 궁전에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헤라의 지시를 받고 출발한 것이다. 이런 현현들을 보면 물론 그리스의 신들은 편재하는(omnipresent)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지만, 가히 순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즉시” 나타난다.

그런데 <오뒤세이아>의 이 장면에서는 신의 현현이 상당히 긴 시간을 소요하고, 그가 공간을 주파하는 과정이 마치 현장 중계를 하듯 그려진다. 헤르메스는 피에리아 산맥을 넘어 [고공] 하늘에서 내려와 [하강] 한 마리 갈매기처럼 파도를 스치고 가는 [저공]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강력한 아르고스 살해자가 날아갔다.
그는 피에리아 산맥을 넘자 대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추수할 수 없는 바다의 무서운 만들을 따라갔는데,
물고기를 잡으며 깃털 많은 날개를 짠 바닷물에 적시는
갈매기처럼 파도 위를 달리는 것이었다.
꼭 것처럼 헤르메스는 밀려드는 파도를 탔다. (Odysseia, 5.49-54)

헤르메스가 칼립소의 섬에 도착해서 그녀의 동굴과 주변 경관을 보는 장면에서는 관찰자가 제한된 공간을 그 구조와 색깔뿐 아니라, 향기와 노랫소리까지 포착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Odysseia, 5.55-75) 좀 길어서 인용은 자제한다.

2.3. 시간과 공간

1) 칸트의 시간, 공간 = 인식의 선험적 형식

칸트의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경험과 인식 이전에 그것의 가능 조건으로서 전제되는 선험적인 형식이다.

2) 그리스 서사시의 시공간 = 신과 인간의 행위, 사건의 때와 장소로서의 시공간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에서 시간과 공간은 구체적인 신들과 인간들의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때와 장소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가리킨다.

3) 신의 시간, 인간의 시간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도 엄연히 한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어머니 혹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신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랑을 나누며, 감정에 있어서도 인간과 같이 희로애락을 겪지만,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니 살아야 한다.

반면 인간은 태어나서 7일째, 가정의 헤스티아(Hestia, 화덕)에서 출생신고에 해당하는 암피드로미아(Amphidromia) 의식을 치름으로써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인이 되면 시민이 됨으로써 공동체의 헤스티아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성인이 된 인간은 자기 인식을 출발점으로, 신화가 들려주는 전통으로부터 공동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을 이해하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지키며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살아간다.

III. 인간이 만들어가는 우주론

이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시간으로부터 150~200년 쯤 뒤로 내려와서, 그리스의 지성사에서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상가들의 우주에 관한 생각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



기원전 6c 그리스 방언 지도

3.1. 탈레스

탈레스(ca. BC 624-546)는 기원전 6세기 초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도시 밀레토스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¹¹⁾ BC 585년 일식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이며 자연 철학의 창시자라고 부른다.¹²⁾ 그가 전해주는 선대 사

11) 플라톤의 <프로타고스>에 탈레스는 그리스의 7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온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밀레토스의 Thales, 뮈틸레네의 Pittacos, 프리에네의 Bias, 우리 도시[아테네]의 Solon, 린도스의 Cleoboulos, 케나이의 Myson, 스파르타의 Cheilon.(cf. 342e-343a)

상가들의 학설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¹³⁾ 탈레스는 만물의 아르케 즉 최초의 원리를 물이라고 보았으며,¹⁴⁾ 대지 역시 물 위에 떠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리고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있다는 주장 또한 내놓았다고 한다.

1) 세계의 기원은 물이다

탈레스가 최초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이아나 우라노스 같은 의인화된 신의 이름을 들지 않고 “물”이라는 기본적인 물질 들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이제 만물을 신들이 아니라 물의 본성으로부터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아르케”는, 흔히 후대에 그렇게 해석하듯 만물이 그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궁극적 원소라는 식의 환원주의를 요구하는 의미라기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최초의 원리라고 하는 편이 더 가깝다. 그렇다면 탈레스의 생각은 상당히 신화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그의 주장은 동향의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오케아노스와 테튀스를 태초의 존재이며 토대로 그린 것과 유사한 생각으로, 세상의 처음과 토대를 “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레스의 이러한 생각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사상에 부합하는 것인데, 후대의 기록에는 이집트의 사제들이 호머도 탈레스도 이집트로부터 물을 만물의 원리라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¹⁵⁾

2) 세계를 떠받치는 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스는 세계의 기원으로서의 물을 신화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의의를 가진다. 지구는 물 위에 떠 있고, 예컨대 지진은 포세이돈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떠받치는 물이 흔들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지구에 관한 탈레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구는 구형이다.¹⁶⁾

②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

③ 지진은 지구를 떠받치는 물의 흔들림 때문에 일어난다.

탈레스는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수학을 공부했고, 그리스에 처음으로 기하학을 도입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 탈레스는 최초로 일식을 계산한 놀라운 천문학자였으며, 심지어 태양과 달의 지름을 측정했다는 후대의 보고도 있으므로,¹⁷⁾ 분명히 신화가 아닌 나름의 “합리

12) <형이상학>, 983 b21-22.

13) 이러한 보고들을 독소그라피(doxography= doxa+ graphy)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가들은 저술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단편만 전하는데, 그래서 이들을 연구할 때 직접 단편 외에 그 사람의 삶과 사상을 후대의 학자들이 쓴 글에서 찾게 된다. 초기의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사상기록자 혹은 학설사가(doxographer)이며, 고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통이 이어진다.

14) 아르케(arche)란 회랍어로 시작, 기원, 혹은 원리를 의미하는 말로, 탈레스 자신이 쓴 용어가 아니라 후대에 엠페도클레스(ca. 490-430)가 처음 쓴 말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주제를 탐구할 때 먼저 앞선 사람들의 생각을 검토하는데, 탈레스 이하 모든 사상가들의 주장에 대해 “아르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5) Ploutarchos(ca. 46-120), *Isis et Osiris* 34; H. Diels and W. Kranz,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1964, 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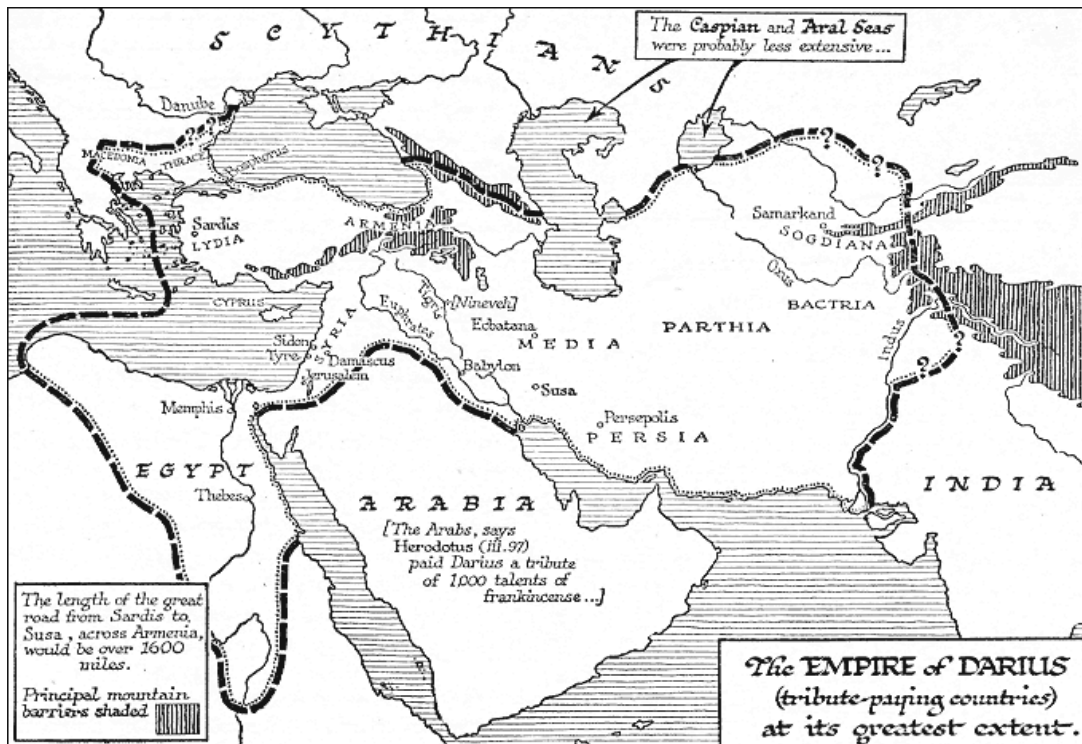
16) 현대에 와서는 탈레스가 평평한 지구를 상정했다는 해석들이 있지만, 정작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와 후대에 이어지는 독소그라피에 따르면, 탈레스는 지구가 구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체론> 293 b33-294 등에서 지구의 모양에 대해 구형, 평면, 원주형 등의 주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한 다음, 294 b14-15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이들로 아낙시메네스,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토스를 들고 있는데, 탈레스의 이름은 없다.

적인 셈에 의거한” 우주와 천체들에 관한 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우주론을 내놓았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3) 만물은 신들로 차있다

다음으로, 탈레스가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있다”(panta plêrê theôn)고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¹⁸⁾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기서 panta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즉 우주(pan)를 가리키므로, 이 말은 “우주는 신들로 가득 차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신들”(theoi)은 특정한 이름으로 불리는 의인화된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천체들의 질서 있는 운행과 계절의 순환 등 우리의 관찰 결과가 그러한 법칙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탈레스가 개별 신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으로 나뉘어 기능하는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총합이라는 단일한 우주를 상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거스리의 표현을 빌면, 탈레스야 말로 처음으로 자연의 다양성이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변해서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다.¹⁹⁾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탈레스를 비롯한 최초의 철학자들이 활동한 바로 이즈음, 즉 기원전 6세기경에 자연의 법칙에 의거한 하나의 단일한 우주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원전 6c 중반의 페르시아 제국(BC 546, Lydia 점령)

17) Diogenes Laertios(fl. ca. 3c), *Lives and Opinions of Eminent Philosophers*, I. 24

18)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I 5, 411a7-8: καὶ ἐν τῷ ὅλῳ δὴ τινες αὐτὴν μεμῖχθαί φασιν, ὁθ-
-εν ἴσως καὶ Θαλῆς ᾤθη πάντα πλήρη θεῶν εἶναι. 어떤 사람들은 그것(영혼)이 우주 전체에
섞여 있다고 말하며, 아마도 이로부터 탈레스도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19) W.K.C. Guthrie(1962),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 1, p.68.

3.2.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발생론

아낙시만드로스(ca. BC 610-546)는 탈레스와 같은 밀레토스 사람이다. 그는 탈레스가 시작한 자연 철학의 탈의인화 작업을 거시적 체계에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독자적인 사상은 사실 탈레스에 대한 반박에서 시작한다. 그는 무한자 혹은 무한정자로 이해되는 “아페이론”(apeiron)이라는 개념을 주창하여, 이 세상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파했다. 그의 우주론은 당시의 학문적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선사한 것으로 보인다.²⁰⁾

1) 아페이론과 우주의 탄생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 Apeiron(결여의 a+peras 한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²¹⁾ 그는 만물의 근원이 불, 공기, 물, 흙 등 어떤 하나의 원소라면 진정한 기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원소가 다른 원소들을 압도함으로써 결국 세상의 다양한 사물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탈레스의 주장에 따라서 물이 세상의 기원이라면, 그것과 대립하는 성질을 가진 불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은 따라서 세계의 기원은 저러한 원소들의 구분이 아직 없는 “아페이론” 즉 무한자-무한정자로서, 그것으로부터 모든 천체와 그 안의 세계들이 생겨난 것이다. 먼저, Apeiron은 무한자(infinite)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헤시오도스의 카오스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생겨나올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원초적인 물체이며, 그러나 결코 다함이 없는 무진장의 어떤 것으로서 이로부터 만물의 시초가 형성된다. 이는 현존하는 모든 생성이 결코 중단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다음으로 Apeiron은 무한정자(indefinite)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그 내부에 구별되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어떤 원소도 아니고, 최초의 원소들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뜨거운 것’(thermon)과 ‘차가운 것’(psychron) 혹은 원소들의 대립을 생성의 원초적 힘으로 보고 이 대립으로부터 모든 생성을 설명한다. 먼저 아페이론으로부터 저 대립자들(enantiotetes)이 분리되어 나오고,²²⁾ 그것들 즉 원소들의 결합으로 만물이 생겨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의 실제적인 원리가 되는 원초적인 물질 혹은 원소들은 불(pyr), 공기(aer), 물(hydor), 흙(ge) 등이다.

2) 우주론의 시작

후대의 어떤 전거에 따르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세계(kosmos)의 생성 과정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산출자(to gonimon)가 영원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며, 이것에서 나온 구형의 불꽃같은 것이 촘촘한 공기에 감싸여 자라고, 이 불이 흩어져서 일종의 원통 바퀴 속에 자리함으로써 천체들이 형성된 것이다. 이 전거는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아페이론으로 본다면 아페이론에서 “산출자”가 분리되어 이것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20) Barnes는 당시 밀레토스의 상황을 한편에 모든 천문가 그룹이 있고 다른 한편에 홀로 아낙시만드로스가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21) Cf. W.K.C. Guthrie(1962), *op. cit.*, pp.76-78.

22)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I 4, 187a12 (DK 12A16).

생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해한 “아페이론에서 원소 대립자들이 나오는” 그림과는 다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체들은 “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마도 탈레스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기하학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그가 주장하는 우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지구는 원통형으로 생겼고, 그 높이는 지름의 3분의 1이다. 말하자면 장기의 말 모양인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금부터 지구를 비롯한 모든 천체들이 일종의 수학적 비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원리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지구: 지름=1, 높이=1/3

하늘의 천체들은 사실상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불덩이인데, 그것이 아주 촘촘한 안개로 이루어진 후프 모양의 바퀴통 같은 것 안에 들어 있고, 그 바퀴통에 구멍이 나 있어서 안에 있는 불빛이 보이는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생각은 신화에서 하늘과 신들의 거처가 청동의 문턱을 가진, 즉 온갖 돌과 금속으로 되어있는 건축물이라는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그림에 따르면 천체들은 불이고, 하늘에는 불만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대립자들을 생성의 원초적 힘으로 보고 이로부터 모든 생성을 설명한다. 아페이론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태초의 대립은 원칙적으로 물질의 근본적인 구성인자인 4원소 즉 불(pyr), 공기(aer), 물(hydor), 흙(ge) 간의 대립이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분명한 생각을 읽을 수는 없으며, 아마도 물-불의 대립자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²³⁾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와 천체들에 관한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천문학은 관찰과 수학적 계산의 결과물이다.
- ② 천체들의 궤도는 완전한 원을 이룬다.
- ③ 지구는 우주의 한가운데 위치하므로 지탱물 없이 떠있다.
- ④ 천체들은 바퀴통의 모양으로 중첩되어 있다.
- ⑤ 별들, 달, 해의 순서로 지구로부터 지구 지름의 9, 18, 27배의 거리에 있다.

23) 가이아(땅)가 만물의 원리라고 이해했던 신화시대가 마감한 이래로 사상가들은 좀체 이 흙을 최초의 원소라고 말하지 않는다. 흙은 나중에 파르메니데스 이후의 다윈론자에게서 4원소들 가운데 하나로 끼어든다. 흙은 플라톤에서도 다른 세 원소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짐으로써, 그것들과 섞이지 않는다. 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야 처음으로 4원소 가운데 온전한 혹은 대등한 하나의 원소로 취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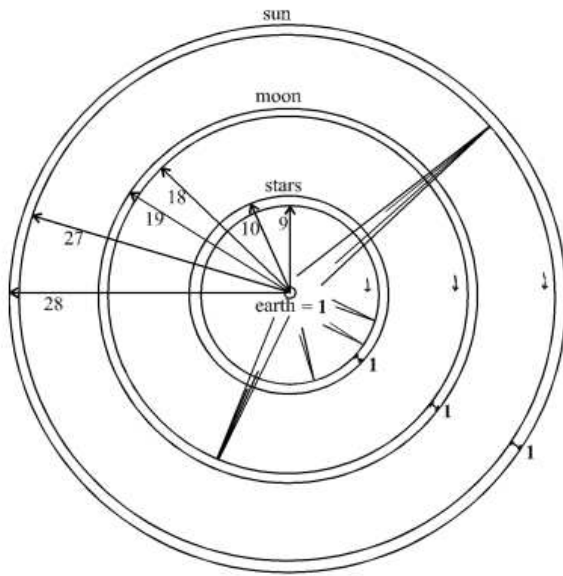


Figure 1
A map of Anaximander's universe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 지구로부터 천체들의 거리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두르는 바퀴통이 별들의 궤도라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인다. 해나 달에 비해 별들은 더 멀리 있지 않을까? 아낙시만드로스가 항성들의 궤도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주장한 것은 그가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이해된다.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을 복원하여 사계절의 현상에 적용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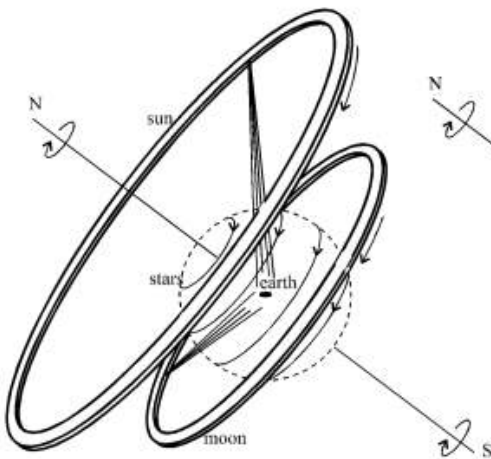


Figure 2
Anaximander's universe in summer, by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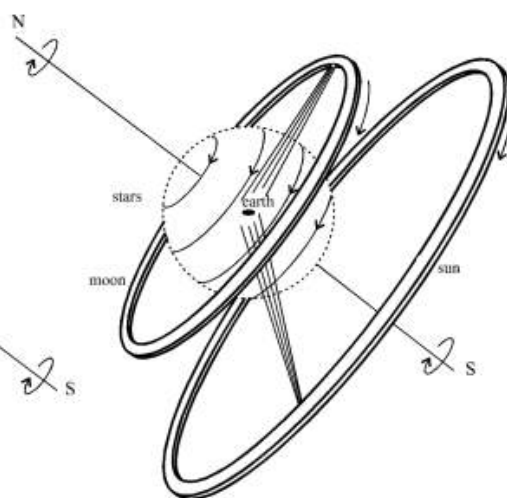


Figure 3
Anaximander's universe in winter, by night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 좌=여름 낮, 우=겨울 밤²⁴⁾

위의 그림은 둘 다 바퀴통에 난 구멍으로부터 천체들의 빛이 나와 지구에 비치는 장면이다. 왼쪽 그림이 여름 낮을 표현한 것인데, 태양 궤도가 별들의 천구를 기준으로 적도의 북쪽에 있어 일조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해가 하늘 위에 있으니 낮이다. 오른쪽 그림은 겨울 밤을 표현한 것인데, 태양 궤도가 적도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고, 해가 지구 아래에 있으니 밤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태양을 거대한 크기의 물질로 본 최초의 천문학자였으며, 따라서 그것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먼지를 처음으로 따져본 사람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는 천체들이 서로 다른 거리에서 회전하는 하나의 체계를 제시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처음으로 물리학적 의미에서 천구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 고안이 아낙시만드로스의 것이라면, 로마의 폴리니우스가 <자연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가 황도대의 기울기를 깨달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위의 그림은 이것을 전체로 그려진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은 당시 밀레토스의 지성계에서는 대담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우주가 처음에 아페이론(apeiron)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것이라고 한 점에서, 그의 이론이 마치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세계가 알에서 나왔다고 믿는 우주 탄생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페이론에서 씨앗이 발아하여 우주가 생성된다는 설명이 마치 태아가 자궁에서 처음으로 떨어져 나오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해석이다.²⁴⁾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발생론”(cosmogony)이 그것이 아페이론에서 씨앗의 형태로 처음 생겨났다는 한 가지 사실을 넘어가면, 그 너머에는 상당히 잘 짜여진 체계적인 우주론이 보인다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철학사에서든 과학사에서든 그에게서 우주론(cosmology)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은 무엇보다 우주를 유기적인 단일체로 보고 그것의 운동을 하나의 체계화된 물리적 모델로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더 이상 의인화된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연 현상과 그 변화들을 관찰과 경험에서 얻어지고 구성된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중요한 자연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신들에게 열렬히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좀 더 풍부한 관찰을 통해 믿을만한 결과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좀 더 정교한 이론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이제부터 펼쳐질 자연 철학의 세계다.

3) 아낙시만드로스의 세계 지도

아낙시만드로스는 또한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여 세계 지도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면 위에서 본 헤카타이오스의 지도와 거의 일치한다. 아낙시만드로스가 헤카타이오스보다 두 세대 정도 앞선 사람이므로 헤카타이오스 지도가 아낙시만드로스의 것을 기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오늘의 끝 그림으로 아낙시만드로스의 지도를 보자.

24) 이 그림은 Dirk L. Couprie 것으로, Wikipedia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떠 있는 자료이다. Cf. *Anaximander in Context: New Studies in the Origins of Greek Philosophy* (Sunny Serie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by Dirk L. Couprie, Gerard Naddaf, Robert Hahn, 2002.

25) Cf. W.K.C. Guthrie(1962), *op. cit.*, pp.89-92.



Anaximander's Map of the World

아낙시만드로스의 세계 지도- 6c 초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발생론 혹은 우주론은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기는커녕 그리스의 후대 사상가들이 내놓은 이론들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고안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으며, 우주를 조화로운 전체로 이해하는 그리스인들의 천체 이론의 첫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